

이탈리아 정부의 문화예산 삭감에 파업으로 대응한 문화예술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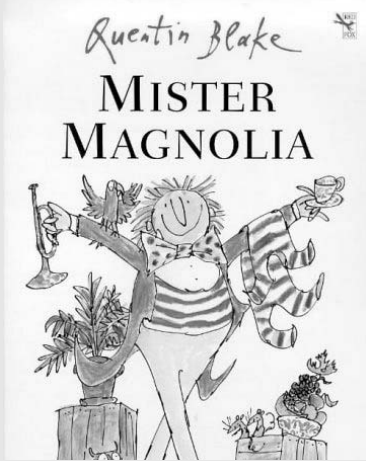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공연 중인 밀라노의 유명한 스칼라극장이 공연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의 문화예산 삭감에 대한 이탈리아 전역에 있는 영화관과 극장이 하루 동안 파업을 단행한 결과이다.

한 문화비평가는 “예산 삭감은 베니스비엔날레 같은 자랑할만한 행사를 포함하여 수천 개의 문화기관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산업연합회 역시 5천개 이상의 회사, 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영화산업, 시민들의 기본적인 문화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며, 총리는 당초 약 6천억 원이 삭감된 중앙예술기금을 4천억 원만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 새롭게 시도하는 어린이 글쓰기 대회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Blue Peter’ (영국 BBC에서 인기있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어린이 글쓰기 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회 방식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7명의 작가, 극작가, 삽화가 등이 그림, 연극 등의 이야기로 첫 부분을 시작하면 대회 참가자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7개의 우승 작품들은 Quentin Blake(영국의 유명한 만화가, 삽화가)가 그림을 그려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잉글랜드예술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 행사는 글쓰기에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Blue Peter’ 측과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 어린이들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먼저 중국 전시회를 개최하는 로알카카데미

로알카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중국 국가전이 내년 1월 예정이었으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영국방문에 맞춰 11월로 앞당겨졌다. 〈중국 : 세 명의 황제들〉전은 내년 4월까지 무려 5개월 동안 개최되며 이는 영국에서 열리는 보통의 전시기간에 비추어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측은 최상급 유물의 경우 부분별로 15%까지만 대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로알카카데미는 그 보다 더 많은 작품을 대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진타오 주석의 방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블레어 총리의 중국방문 시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티켓판매는 관객과 만나는 첫 번째 관문

October 2, Denver Post

덴버의 가장 큰 4곳의 예술단체(Colorado Ballet, Colorado Symphony, Denver Center for Performing Arts, Opera Colorado)들은 공동으로 운영했던 티켓 판매시스템을 각자 하기로 결정했다. 콜로라도심포니 한 관계자는 “티켓 판매서비스를 아웃소싱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공동판매는 전략적인 실수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네 단체의 티켓 판매시점, 판매방법, 패키지 등의 할인방법 등이 모두 달랐으며, 또한 작품에 대한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역시 어려웠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단체들이 티켓판매직원은 단순히 티켓을 판매하는 업무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음악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 언젠가는 음악잡지의 구독자가 되고 잠재적으로는 기부자나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티켓판매직원은 고객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직원이다’라고 한 마케팅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무용계에서 시도하는 맛보기 프로그램

September 25, The New York Times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춤과 같은 예술 형태에 있어서 저가의 입장권으로 관람하는 맛보기 프로그램들이 인기 있는 기획으로 부각되고 있다. 뉴욕시

티센터에서 열리는 ‘Fall for Dance’ 페스티벌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루 10달러를 가지고 수십 편의 유명한 무용단의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2004년에 110만 달러(약 1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 이 행사는 6일 동안 2,750석 공연장 입장권이 전부 매진되었지만 15만 달러의 저조한 입장료 수입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체요리 같은 것이며 예술을 값싸게 생각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 작품, 정식 요리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느냐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다.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힘

Gill Moon이라는 가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자본도 없었지만 1996년에 웹사이트를 제작한 후 ‘MP3.com’에 링크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그녀는 LA에 있는 그녀의 거실에서 곡을 쓰고 녹음을 하며, 온라인상으로 콘서트 홍보, 입장권 및 CD 판매를 하고 있으며, 곧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의견을 관계자와 주고받기도 한다.



이렇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향하는데,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력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또한 음악가들이나 영화제작자들은 스튜디오를 사용함에 따라 비싼 대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ProTool’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됨에 따라 집에서 최고의 품질의 레코딩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관객들의 취향도 다양해지고, 틈새시장이 발달하면서 예술가들이 음반회사, 갤러리, 영화배급사 등 매개자들을 넘어 직접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윤희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